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 목사

김원재, 양명철

## 주일예배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말은이

찬 양\*

이 몸에 무슨 소망있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다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인도

인도자

봉 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1:6-11

다같이

말씀선포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이 몸에 무슨 소망있나

다같이

축 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화요일 저녁 7:30에 “생명의삶” 공부가 있습니다.
3. 오전 5시 30분(월~토)에 드리는 영상 새벽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역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어버이 주일을 6월 21일(아버지날)로 연기합니다.
5.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로, 새벽기도회는 Zoom을 통한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5월 16일(토) 송봉익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금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예배당 건축이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

바울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누가'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라고 말합니다. 영화 속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I can't fix their believes" 바울 자신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누가는 새로운 서신을 직접 써서 보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서신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에 믿음의 확신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를 보며, 제 머리 속을 스쳐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투성이 고집쟁이인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역도 많았지만, 실수와 실패도 많았던 사역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날 바울을 최고의 사도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서신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도 부르셨지만, 진정한 목적은 그를 기독교를 정리하고 변증할 최고의 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복음의 위대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모른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기도 하고,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한채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히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고, 그 언젠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2,442
--------	------	--------	-----------